

불우이웃돕기 문화행사 3곳

청정무심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선화로 유명한 수안스님, '필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비구니 법현스님, 중진 서예가이며 도예가인 석천 이경희씨 등이 가을을 맞아 IMF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전 사회와 음악회를 마련,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 수안스님은 산, 해, 달, 소나무, 학, 꽃 등 자연과 선종의 초조 달마를 그린 그림 40여점을 선보인다. 수안스님만의 독특한, 간결명료한 선과 밝고 따스한 색이 해맑으면서도 절립없는 부처님세계를 생동감있게 펼쳐놓는다.

스님은 "밤낮없이 참선정진하면서 나 자신 기(氣)가 충만하다고 느낄 때 붓을 잡고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주눅이 들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침체돼 있으면 더 침체되기 마련이지요. 그림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며 생명의 귀중함을 새삼 인식해 용기를 얻어 이 고달픈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고 말한다.



◇수안스님 그림전람회에 나오는 '산'.



◇'더불어 사는 음악회' 여는 법현스님.



◇이경희작 백지청화 '심경' 명대호.

- 수안스님 선화전**
21~27일 경인미술관
청정무심의 선화 40여점
- 법현스님 음악회**
28일 한국일보 콘서트홀
자전에세이 출판기념식도
- 이경희씨 陶書展**
25~30일 세종문화회관
반야심경 새긴 도자기 108점

법현스님(서울 대보사)은 28일 오후 7시 중화동 한국일보 콘서트홀에서 '자전에세이 출판기념 및 제2회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96년부터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시작한 스님은 1회 때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기증했고 이번에도 수익금을 모아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도소 등 포교현장에서 첼로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불평을 정파해 온 법현스님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의 '미뉴엣', 생상의 '백조' 등을, 최수미(바이올린) 황수진(비올라) 씨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등 현악 4중주곡을 연주한다.

각각 다른 체의 한글과 한문의 <반야심경>이 새겨진 대형 도자기 108개, 글씨도 빼어나지만 도자기의 모양과 디자인, 색깔이 108개가 다르다. 더구나 <반야심경> 260자는 먹으로 써서 그것을 새긴 것이 아니라 칠로 단 한번에 도자기에 직접 새긴 것이라 더욱 놀라움을 준다. 이 '일도각법(一刀刻法)'을 창시한 서예가이자 도예가인 석천 이경희씨(53)가 25~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중한협 인권위원회 주최로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로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광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적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 둘째** 집안의 환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氣)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등반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이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펼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화 '팔만대장경' 만든다

유승현감독... 내년 3월 개봉 예정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국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장경 판각을 통해 국난 극복과 국론을 통일하게 됐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영화화한 '팔만대장경'이 제작된다.

세양프로덕션(사장 이양우)은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유승현감독을 비롯 제작 및 스태프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팔만대장경 제작과정과 행사 등 미루와 민초여인 회랑의 사랑이 결집되어 흥미를 더해줄 이번 영화에

연출을 맡은 유승현감독(53)은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고일 뿐 아니라 국난극복의 상징"이라며 "경제한파로 좌절과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 유감독은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만큼 세계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적인 메시지는 물론 사랑과 영웅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만명이 투입될 예정."

컴퓨터그래픽 기법이 사용될 영화 '팔만대장경'은 총제작비 52억원으로 20일 크랭크인, 4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영화는 지난 78년에도 한진영화사에 의해 제작 상영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유승현감독.

99년 '이달의 문화인물' 2월-혜초스님, 9월-김시습

문화관광부는 혜초스님과 설삼스님(김시습) 등을 포함한 내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1월=서양화가 이종섭 △2월=신라시대 선진해의문화 소개에 큰 업적을 남긴 혜초스님 △3월=조선 후기 실학자 유희원 △4월=조선 말기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최한기 △5월=독립운동가 김창숙 △6월=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을 △7월=조선초 문인 맹사성 △8월=한말 순국지사인 황현 △9월=생육신의 한사람 설삼스님(김시습) △10월=조선전기 어문학자 최세진 △11월=문화와 서화, 요리에 능했던 정부인 안동장씨 △12월=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이승훈.

수월관음도-지장삼존도 '보물'로 문화부, 삼화사철불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관광부는 10일 수월관음도, 지장보살삼존도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삼화사 철불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1287호로 지정된 수월관음도는 14세기 경의 고려시대 불화로 합장한 선재동자가 반가의 자세로 오른쪽을 향하여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에게 청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인물 색을 띠는 도명존자의 얼굴색이 회색 표현된 점, 안쪽의 돌출이 머리 받침에 대고 있는 점 등은 이 작품 초연문 등이 14세기 고려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보물 제1286호로 지정된 지장보살삼존도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배치된 삼존도 형식과 표현기법, 색채, 필선 등에 있어 고려불화의 특색이 잘 나타난 여말선초의 그림이다. 주존인 지장보살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점과 좌우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수경선상이 아닌 사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검은 색을 띠는 도명존자의 얼굴색이 회색 표현된 점, 안쪽의 돌출이 머리 받침에 대고 있는 점 등은 이 작품 초연문 등이 14세기 고려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보물 1287호 '지장보살삼존도'.

'느낌 극락같은' 작품-희곡연출상 '98 서울국제연극제

'느낌, 극락같은' (이강백 작 이윤택 연출)이 15일 개막된 '98 서울국제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강백씨가 희곡상을, 이윤택씨가 연출상, 김소희씨가 신인연극상을, 김수진씨가 무대예술상을 각각 수상. 지난 8월 31일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을 비롯 대학로 일대의 소극장 등에서 펼쳐졌던 서울국제연극제의 5개 부문은 합쳐서 100여건의 작품을 소개했다.

'느낌 극락같은'은 한 스승 밑에서 불상을 만드는 두 제자의 상반된 가치관과 갈등을 통해 인간의 진실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추구한 불교극이다.

이강숙 기자

불심시심 <146>

베옷으로 산문 나선 적 없다

산문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베옷이나 부끄럽게도 지금껏 도를 이루지 못했구나

돌 앞 잣나무 공부 누구는 득력을 해서 연화의 세계에서 다만 이름을 들리지

미친 노래는 향시 근심 속에서 튀어나오고 맑은 눈물은 허다히 휘한 뒤에 흘린다

선장을 끌고 나면 오히려 실소하니 우리를 보고 천진한 백성이라 험하지 마소

장춘 동파(長春洞難詩)라 한 여러 수의 시종 끝 수이다. 이 시는 장춘 동파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 서쪽에서 온 뜻이나 했을 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해 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은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